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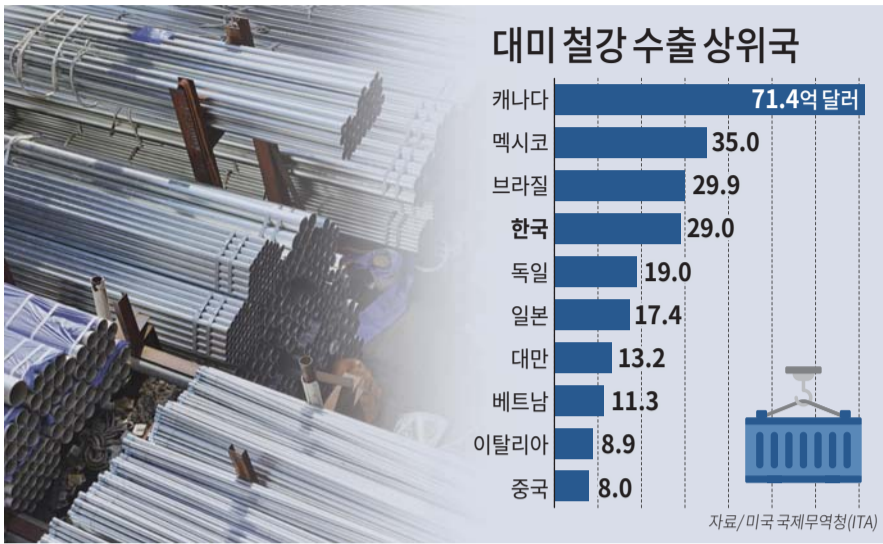
美 철강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 韓기업 단기 수혜 전망

트럼프發 글로벌 관세전쟁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1기 당시 단기적 가격상승 효과
“정부·기업, 장기적 대응 필요”

예상보다 강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 방침에 국내 철강사들의 썬병이 복잡해졌다. 지난 트럼프 1기 때처럼 단기적으로 미국 내 수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불확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 한국은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해당 물량에 한해 무관세 혜택을 받는 쿼터제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런 예외 조치를 모두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을 포함한 각국을 대상으로 한 일괄 관세 및 보편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미국 경제에 영향이 적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한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향후 협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한 백악관은 관세 조치 홍보 과정에서 현대제철의 미국 현지 공장 검토를 언급하며 관세 효과의 사례로 들기도 했다. 현대제철은 현재 미국 남동부 지역에 전기로 사업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사들은 미국 정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공급망 규제가 심화

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 거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향 수출 제품의 가격 상승이 국내 철강사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미국 내 철강사가 동물이 70% 중반에서 80% 초반까지 상승했다. 특히 무역규제가 시작된 2018년 하반기에는 미국 내수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시 국내 철강사들도 수출 가격 상승 효과를 누렸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경우 단기적으로 미국향 수출 제품의 가격이 올라 국내 철강사들이 짧게나마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철강에

대한 25% 관세와 더불어 30일 유예된 25% 일괄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총 50%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면서 기존 대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는 중국과 일본 산 철강재에 대한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에 촉각을 두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공세로 펼치는 수입산 제품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고 내수 시장에서라도 가격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내 철강 제품 가격이 높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미국향 수출 제품에 이익일 수는 있으나 터키 등 지리적으로 수출이 유리한 국가들도 있어 가격이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며 “이번 관세 조치는 기업 차원의 대응보다 국가 단위의 대미 협상력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 기업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IT·게임업계, ‘주 52시간 예외’ 반대... “건강한 노동환경 만들어 가야”

업계, 공동요구안 도입 입장

“장기적 발전에 도움 되지 않아”

IT·게임업계 노조가 정치권에서는 논의 중인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동요구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화성식품노조 IT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IT·게임산업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소진하는 것”이라며 “업계 전반적으로 인적 토대를 취약화해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세윤 IT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자를 갈아 넣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동자가 더 몰입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IT위원회는 각 기업이 진행 중



IT·게임업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IT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임단협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게임기자단

인 노사 임금·단체교섭 관련 공동요구안을 최초로 제시하기도 했다. 노조는 공동요구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위원회 설치 ▲인사평가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 공개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전환배치

절차 개선 ▲분사·인수·합병 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 개선 등이다.

공동요구안은 IT·게임업계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에 대해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섭 화성식품노조 위원장이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화성식품노조IT위원회

신한섭 화성식품노조 위원장은 “화성식품노조의 활동으로 IT·게임업계에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포괄임금제가 퇴출됐다”며 “앞으로 IT·게임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고용 불안, 불공정한 평가 등의 문

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윤 IT위원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현행법상 조사 판단의 주체가 모두 사용자인 만큼, 조치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IT업계는 프로젝트 개편에 따른 전환배치나 분사 등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자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IT위원회는 2025년에 열리는 각 회사의 임단협 교섭에서 공동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공동요구안이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화성식품노조 IT위원회가 산별노조로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HD한국조선해양, SMR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 공개

(소형모듈원전)

“2030년까지 해상 원자력 모델 개발”

HD한국조선해양이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을 공개하고 무탄소 시대를 앞당긴다.

HD한국조선해양은 12일 미국 휴스턴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 센터에서 열린 휴스턴 해양 원자력 서밋에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산급(ABS)으로부터 SMR 기술을 적용한 1만5000TEU급 컨테이너선 설계모델에 대한 기본인증(AIP)을 획득한 바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 공개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은



HD한국조선해양이 공개한 1만5000 TEU급 SMR 추진 컨테이너선의 조감도.

실제 기자재와 안전설계 개념까지 반영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큰 부피를 차지하던 기존 기관실 기자재 공간에 컨테이너를 추가 적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인리스강과 경수(냉각재)를 사용한 이중탱크 방식의 해양 방사선 차폐 시스템도 적용

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 베이커 휴즈와 공동으로 개발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기반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증기 기반 추진 시스템 대비 열효율을 약 5% 개선하는 효과를 얻는다.

HD한국조선해양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미래기술시험센터에 해상 원자력 실증설비를 구축해 안전설계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민 그린에너지연구개발 상무(부문장)은 “국제 규정 마련을 위해 주요 선급뿐 아니라 국제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육상용 SMR(소형모듈원전) 원자로 제작 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해상 원자력 사업 모델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XR 기기 상용화 박차... 3분기 헤드셋 출시

>> 1면 ‘두번 접는 스마트폰...’서 계속

◆ 트리폴드폰, 유럽 특허 등록...XR 헤드셋 상표권 출원

가장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가 빠르면 연내 두번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 기대감이다. 두번 접는 스마트폰인 트리폴드폰의 명칭은 ‘갤럭시G 폴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갤럭시 폴더블7시리즈 등을 하반기에 내놓는 만큼 연초 스포셜 에디션으로 출시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IT팁스터는 “갤럭시G폴드의 카메라 및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가 최근 유럽에 등록됐다”며 “2024년을 시작으로 최근 3개월 동안 3년 폴드 관련 특허 공개가 집중되고 있어 실제 제품 출시는 2026년으로 관측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갤럭시G폴드의 디스플레이 너비는 9.96인치, 높이는 6.54인치다. 무게는 약 298g으로 역대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S25 울트라(218g)보다 80g 무거운 수치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올 3분기 확장 현실(XR) 기기인 헤드셋을 출시한다.

이날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갤럭시 XR’ 상표권을 출원하며 본격적인 출시 준비에 나섰다. 통상 상표 출원은 XR기기 사업을 상용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번 XR 기기는 콘텐츠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글의 기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XR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